

삼일교회 3대 비전(vision)

-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 2.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청년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 3. 선교와 나눔으로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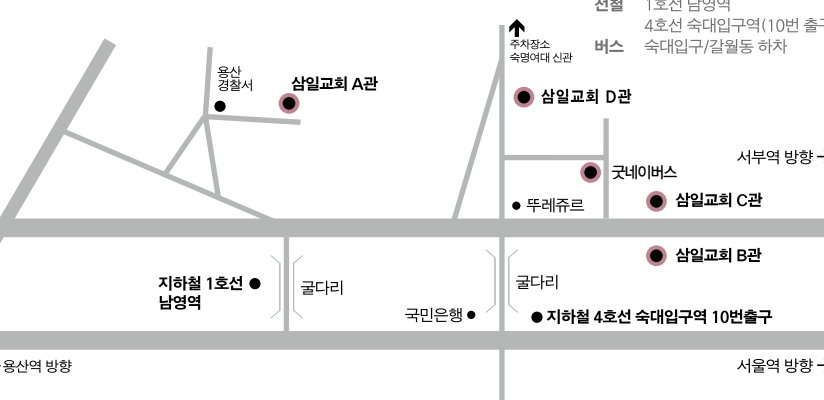
집회안내

집회	시간	장소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삼일교회 B관 2층	영아세쌍부(1~2세)	1부: 오전 10:30	B관 405호
	2부: 오전 10:30	(2부 영어통역 3층)	영아세쌍부(3세)	2부: 오후 1:30	B관 404호
	3부: 정오 12:00	(3부 중국어통역 3층)	유아소방부(4세)	1부: 오전 10:20	B관 703호
	4부: 오후 1:30		유아밀음부(5세)	2부: 오후 1:30	B관 401호
	5부: 오후 3:00	(5부 일본어통역 3층)	유치부(6, 7세)	오전 10:10	7층 중예배실
젊은이예배	6부: 오후 4:30		유년1부예배	오전 10:30	굿네이버스3층
			유년2부예배	오전 10:30	굿네이버스4층
주일 저녁예배	7부: 오후 7:00		초등부예배	오전 10:30	B관 1층 소예배실
			소년부예배	오전 10:30	C관 5층
수요일예배	1부: 오전 11:00		중등부예배	오전 11:00	C관 4층
	2부: 오후 7:30	삼일교회 B관 2층	고등부예배	오전 11:00	C관 3층
금요일아기도회	오후 10:00		대학부예배	오후 4:30	D관 지하 1층
			영어예배	오후 1:30	B관 504호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새가족부	주일 낮 예배직후	C관 1층 새가족부실
	2부: 오전 6:30		리더교육	토 오후 5:00	B관 2층

11월 대표 기도 순서	11월 봉헌위원
1부	1부 박동선 집사
2부	2부 김희석 집사
3부	3부 이형우 집사
4부	4부 장석면 집사
5부	5부 이영규 집사
6부	6부 박정식 집사

교회안내

B관	베다니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4 (청파동1가 삼일교회 교육관)	Tel 02-713-2660	Fax 02-3273-5297
A관	아브라함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89길 18-19	Tel 02-711-4328	
C관	씨클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5	Tel 070-4264-9210	Fax 02-711-3126
D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34-2		
헤세드 상담센터(D관2층)		Tel 02-712-0300	Fax 02-712-0700
삼일기도원_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철마산로 336-10		Tel 031-592-8385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송태근	원로장로	이광영 장로 이대규
행정	강병희목사 010-9903-7198	이광영 010-5474-7954	
새가족부	하근태목사 010-6743-1368	박신찬 010-8869-1702	
수도권선교	강종욱목사 010-2546-7494	나원주 010-6359-3787	
일본선교	박두진목사 010-7310-3103	창구경 010-5385-4274	
P.O.P	전영훈목사 010-4217-2215	김경준 010-8702-4369	
새내기	이익주목사 010-8769-0191	김경준 010-5342-8911	
		주병욱 010-4231-2902	
주일학교	교육디렉터	우상현목사 010-2405-4525	지휘자/반주자
	영아씨앗부	이현덕전도사 010-2842-5769	A 그룹
	영아새싹부	최영길전도사 010-9926-8605	B 그룹
	유아소방부	전용희전도사 010-6643-7341	C 그룹
	유아밀음부	조혜정전도사 010-4691-8622	D 그룹
	유치부	이지혜전도사 010-5061-2880	E 그룹
	유년 1부	최강현전도사 010-9443-0753	젊은이
	유년 2부	최지원전도사 010-3243-9981	저녁
	초등부	박상선전도사 010-3777-6239	수요1
	소년부	이성근목사 010-3101-1673	수요2
	중등부	이규현강도사 010-2771-1464	
	고등부	유희성목사 010-7708-7443	직원
	학원선교부	김성태목사 010-2241-1950	행정실장
		박성민강도사 010-7343-5007	서 무
		순정현전도사 010-2871-8480	회 계
			총 무
			관 리 1
			관 리 2
			전 산
			영 상
			음 향
			조 명
			목 양 실
			A, D관 관리
			C관 관리
			식당관리
			경 비 실
			천 기
			설 비
			설 비
			설 비
			기 도 원
			파송선교사
			전병두
			박미진
			안성권
			현해욱
			전영민
			신용길
			일본
			대만
			M국
			대만
			동아시아
			C국
			한국선교동맹가네트웍
			국내선교
			해외선교
			신홍식(태국)
			오오셀(동아시아)
			이동현(M국)
			김대위(동아시아)
			정 식(동아시아)
			정윤진(인도)
			김수용(CCC해외선교부)
			안선희(나미비아)
			박정식(탄자니아)
			김영진(몽골)
			신국원목사 02-3479-0330



주일 1~5부 예배	설교 송태근목사 (1부: 윤종원목사 2부: 김현욱목사 3부: 우상현목사 4부: 김광은목사 5부: 안영민목사)
	본문 시편 105:1-7
	제목 “그 이름을 자랑하라” <추수감사주일>
	헌신기도 1부: 이대규장로 2부: 주병욱장로 3부: 장구경장로
주일 젊은이예배	설교 최성근목사
	본문 마가복음 8:27-38
	제목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일 저녁예배	설교 송태근목사 (사회: 이성근목사)
	본문 요한계시록 3:1-6
	제목 요한계시록강해(9) “거짓 평안(사데 교회)”
수요일예배	1부 김정일목사
	본문 욥기 42:1-7
	제목 “눈 뜸”
	2부 남수호목사
	본문 요한복음 8:21-30
	제목 “예수의 증인”
금요일야예배	설교 송태근목사 (사회: 유희성목사)
	본문 느헤미야 9:1-8
	제목 “부흥의 세 가지 기초”
새벽예배	설교 월: 이윤준목사 화: 김수훈목사 수: 양제현목사
	목: 김일호목사 금: 송태근목사

Samil Church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일교회

담임목사 송 태 근

GBS교안

2015. 11월 셋째주.

“그리스도인의 자유” (갈라디아서 2:1-5)

■ 들어가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지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해 온 공동체를 통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1. 다름의 유익

1.1. (관찰)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였나요?

■ 2:1

1.2 (관찰) 바나바에 대해 아는 대로 정리해 봅시다. ‘행4:36:9:27:11:24,25’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 2:2

1.3. (나눔1) 공동체에는 바울, 바나바, 베드로, 디도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특성에 맞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아름다운 조화로 이루어가는 곳이 그리스도 공동체인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더하여 다른 지체는 어떤 유형인지 서로 이야기해 주며 서로의 유익을 나누어 봅시다.

2. 하나의 복음, 하나 되는 공동체

2.1. (관찰) 계속해서 예루살렘 방문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울의 여전한 의도는,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독립적으로 사역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자세히 시간을 언급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 2:1

2.2. (관찰) 또한 바울은 무엇에 이끌려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고, 방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 2:2

2.3. (나눔2)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밝히고, 서로가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로가 섬김의 대상은 다르지만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진리는 배타적으로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확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만 신비스러운 계시나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이론이나 단체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4. (나눔3) 예루살렘 사도들이나 바울이 전했던 초대교회의 복음은, 인간적 기준으로 서로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복음이 아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서로가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 때문에 형제나 자매를 배척하였거나, 배척당하는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나누어 봅시다.

